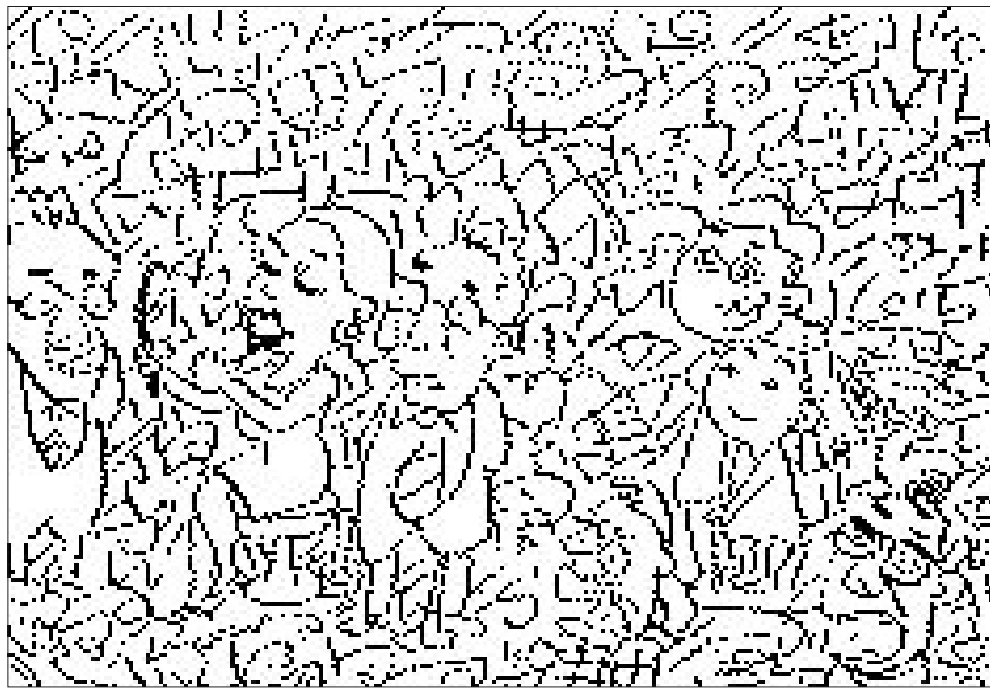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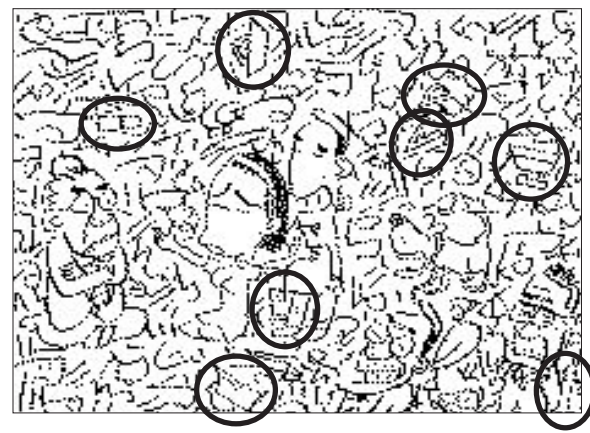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40>



찾아보세요 답배피프, 열대어, 서틀룩, 우유팩, 개구리, 양주잔, 슬리퍼, 병따개

여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 1. 티셔츠 한 벌 사자고 3시간 동안 100 군데도 넘게 들락날락거려다 결국 맨 처음 집에 가서 원피스 사가지고 나올 때.
2. 벌써 2시간 째 전화통화 중. 너무 한다 싶어 버럭 소릴 질렀더니, 전화 끊으며 한 마디, "그래 그래 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3. 시간 없다고 뒤달하면서 아침도 안주더니, 40분째 화장대 앞에서 아직도 눈썹 그리고 있을 때.



지난주 정답

음표, 못, A자, 다리미, 서틀룩, 종아베, 제비, 펜촉, 립스틱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정화 <목포시 상동> 조연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아프리카 성자' 슈바이처 90세 일기로 타계



구가의 필독서로 꼽히는 '음악가·시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를 집필하였다. 성 니콜라이 교회 목사이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교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하며 유럽 최고의 지성인으로 손꼽히던 슈바이처는 1913년 의학박사로 변신한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서른 살의 나이에 의사가 될 결심한 슈바이처는 1913년 서른 여덟의 나이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아내 엘레네 브레슬라우와 함께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현 가봉공화국) 랑바레네 지역으로 건너가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랑바레네가 프랑스령이 되면서 독일 국적의 슈바이처는 의료봉사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1917년에는 전쟁포로가 되어 프랑스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독일로 송환되기도 했던 슈바이처는 1921년 아프리카의 생활을 담은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를 출판하고 유럽전역을 다니면서 강연회를 여는 등 의료 봉사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끈다. 1924년 랑바레네에서의 활동을 재개한 슈바이처는 병원을 짓고 의료 봉사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1952년 노벨평화상의 영예를 안은 슈바이처는 노벨상 상금으로 나환자촌을 세우는 등 실천하는 지성인이자 '아프리카의 성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시대를 초월한 '생명 의경 사상'을 주창했던 슈바이처는 1965년 9월4일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던 아프리카 랑바레네에서 전세계인의 애도 속에 눈을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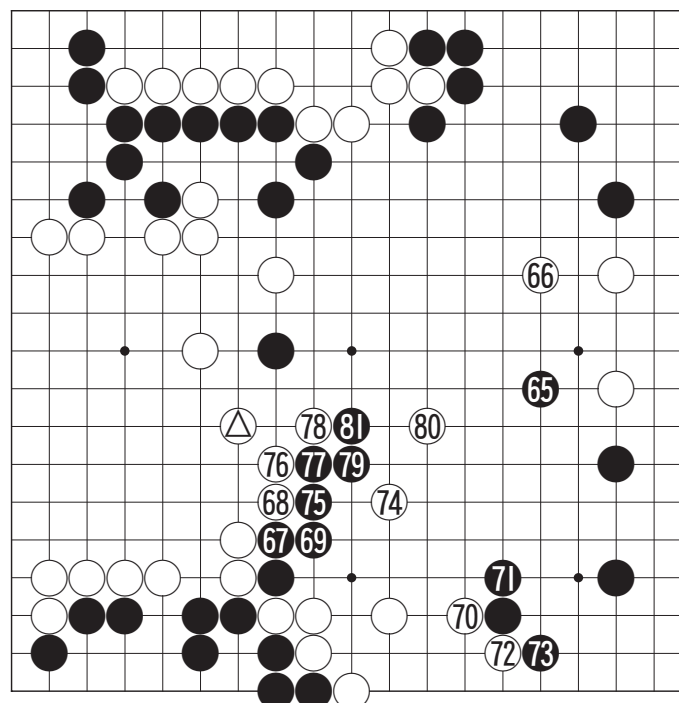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비특대연

위험한 승부수

개인전 준결승 5보 (65~81)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백 △로 지켜 좌변의 백 모양이 완성되었다. 이 모양은 흑 집을 모두 합친 것에 필적할 정도의 위용이다.

방재혁 5단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일단 흑 65를 선수하고 나서 67로 흑 한점을 움직여 나간다. 이 수는 일단 백 68로 두점머리를 얻어맞는 모양이 아파서 보통 때라면 생각하기 힘든 수. 그러나 지금은 비삼국이라고 보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때 백 70, 72를 선수한 다음 74로 공격한 것이 공격본능이 발달한 김영수 5단다운 좋은

수법이었다. 이렇게 되자 흰가 공격의 틈을 엿보려던 흑의 작전에 차질이 생겼다. 공격을 해보기는 커녕 일반적으로 쫓기는 형국이 되어 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역시 처음부터 흑 67로 움직인 것이 다소 무리였던 것이다.

방재혁 5단이 안간힘을 다해 흑 75로 밀어갔는데, 이리저 부자가 된 김영수 5단의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백 76으로 늘고 말았는데 이 수로 79에 두어 잡으려 했으면 살 길이 없었다. 흑 81로 밀어가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백도 어딘지 허술한 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특대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음 8월 4일 丙午)

Table with 12 rows, one for each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ach row contains a brief fortune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138>

How do you want to get to the party? 그 파티에는 어떻게 갈 건데?

- A: How do you want to get to the party?
B: Why don't we borrow the car?
A: Do you think they'll let us?
B: Sure, I do it all the time.

- A: 그 파티에는 어떻게 갈 건데?
B: 그 자동차 빌리는 거 아때?
A: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빌려줄까?
B: 그럼, 항상 그렇게 하는걸.

- \* get to ~ = ~에 가다, 도착하다
\* Why don't we ~? = ~하지 그래?
\* let : 허락하다(=permit)
\* all the time : 언제나, 항상
\* 한 번 올래?
= Why don't we come ov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38>

まだ來(き)ていません。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A: 西山(にしやま)さんはもう來(き)ていますか。
B: いいえ、まだ來(き)ていません。
A: 變(へん)ですね。
B: すみませんが、もう少(すこ)し待(ま)ってください。

- A: 니시아마씨는 벌써 와 있습니까?
B: 아니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A: 이상하군요.
B: 미안하지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 待(ま)つ : 기다리다
まだ : 아직
變(へん)だ : 이상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15>

现在几点? 지금 몇 시입니까

- A: 请问, 现在几点?
Qǐngwèn xiànzài jǐdiǎn
請問 現在 幾點
B: 現在一點。
xiànzài yídiǎn
現在 幾點 一點
A: 你几点上班?
Nǐ jǐdiǎn shàngbān?
你 幾點 上班
B: 我七點上班。
wǒ qīdiǎn shàngbān
我 七點 上班
A: 請稍等一下, 現在幾點?
Qǐngshùohuà yíxià xiànzài jǐdiǎn?
A: 請稍等 幾時 幾點 幾點?
B: 現在七點 幾點 幾點.

- 几点 [jǐdiǎn] 몇시
几點 [jǐdiǎn] 幾點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855>

壽則多壽(수즉다목) 장수수, 곧 죽, 많을 다, 목욕

수즉다목(壽則多壽)은 오래 살면 육된 일이 많다는 뜻으로, 오래 살수록 망신스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됨을 비유한다. 이 말은 '장자(莊子)' 천지편(天地篇)에 나오는 우화에서 유래하였다. 유학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堯)임금이 순행(巡幸)중에 화(華)라는 변경에서 관원을 만났다. 그는 공손히 "장수하십시오." 하자, 요임금은 "나는 장수를 원하지 않네." 하였다. "그러시면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네.", "그러시면 아들을 많이 낳으십시오." "그것도 나는 원치 않네. 아들이 많으면 못난 아들도 있어 걱정의 씨앗이 되고, 부자가 되면 슬데없는 일이 많아져 번거롭고, 오래 살면 육된 일이 많은 법이네(壽則多辱)."

이 말을 들은 관원은 심마한 얼굴로 중얼대듯 말했다. "요 임금은 성인이 아니라 군자(君子)에 불과하군. 아들이 많으면 각기 분수에 맞는 일을 맡기면 되고, 재물이 늘면 남에게 나누어 주면 되고... 세상이 정상이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그 번영을 누리고, 정상이 아니면 스스로 덕을 닦고 은둔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 100년쯤 장수하다가 세상이 싫어지면 그때 신선이 되어 흰구름을 타고 옥황상제(玉皇上帝)가 계시는 곳에서 놀면 나쁠 것도 없지..." 관원은 말을 마치자 그 자리를 떠났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